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8. 10. 31.(수)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장승수, 주무관 : 장재원, 최일현 • ☎ (033) 769-5860, 5867, 5868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원주국토청, 품질관리 소홀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엄중한 처벌 단행

- 발주자 의무위반 과태료(4건), 건설관계자 품질관리 위반 벌점(15건) 부과 -

- 원주지방국토관리청(청장 주현중)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본부와 합동으로 강원도 관내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품질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.
 - 점검은 41개 현장에서 실시하였으며, 총 6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고, 그 중 품질관리가 부실한 현장의 발주자와 건설관계자에게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하였다.

- 세부사항으로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미계상한 지자체장 및 민간 사업자에게 총 750만원의 과태료*를 부과하였다.
 - * 태백시 375만원, 평창군 250만원, 민간 사업자 125만원

- 아울러, 레미콘 품질시험 미실시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, 가설 구조물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미확인 등 1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건설관계자들에게 벌점을 부과**하였다.
 - ** 레미콘 자재 품질시험 소홀 등 11건,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미확인 4건

- 원주국토청 관계자는 금번 품질관리 특별점검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견실시공 유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였으며,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장·단기적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성능 보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,

- 강원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건설 재해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잘못된 품질관리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.
- 또한,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“강원지역 건설 재해율 저감을 위해 앞으로 건설공사 점검에 따른 위반 사항을 강도 높게 처벌하여 품질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하면서,
 - “품질관리 관행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함께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품질 컨설팅 등 지도·교육을 병행하여 강원지역의 건설공사가 최상의 품질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장재원 주무관(033-769-586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